

2027

서울 WYD(세계청년대회)

**기초문헌**



2027  
서울 WYD(세계청년대회)  
**기초문헌**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 편찬 위원

2027 서울 WYD 기초연구 문헌팀

## 2027서울 WYD(세계청년대회) 기초문헌

2025년 5월 29일 교회 인가

2025년 6월 29일 초판 1쇄 펴냄

**펴낸 이** 정순택

**펴낸 곳**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제 안** 2027 서울 WYD 기초연구팀

**연구·종합** 2027 서울 WYD 기초연구 문헌팀

**주 소**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4층 WYD 사무국

**전 화** 02-2230-2027

**홈페이지** <https://wydseoul.org>

**캘 리** 유임봉

**디자인** 김화진

**인 쇄** 가톨릭출판사

ISBN 979-11-6015-118-3 03230

비매품

성경·교회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이 책에 대한 저작권과 판권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목 차

---

1. WYD에 대한 이해 • 7
  2. 한국 교회와 시노달리티스 • 15
  3. 한국 교회의 젊은이 시목 이해 • 20
  4. 2027 서울 WYD의 의미 • 28
  5. 2027 서울 WYD 주제 상구에 대한  
신학적 · 시목적 성찰 • 37
  6. 2027 서울 WYD의 시목 방향과 운영 원칙 • 43
  7. 맺음말 • 62
- 미주 • 64

## 교구장님 말씀

“젊은이는 교회의 희망이며 세상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개최지로 서울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한국 교회를 “젊은이들과 함께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교회”로 초대하셨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는 신앙의 순례입니다. WYD를 통해 젊은이들은 하느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복음화의 사도로 파견됩니다. 교회 역시 젊은이들과 함께 걸으며 공동체를 새롭게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평신도 신앙과 순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성령 안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2027 서울 WYD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교회를 젊게 하고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의 아픔과 꿈을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기도와 성찬을 통해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7 서울 WYD는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의 순례’입니다. 본당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신자가 이 길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함께 걸기를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 아드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장

十 정순택

“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하느님 사랑과 은총 안에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에너지입니다.

- 서울대학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2027 서울 WYD(세계청년대회) 발대 미사 중

## 1

## WYD에 대한 이해

## ■ WYD란?

WYD(World Youth Day의 약자, ‘세계 젊은이의 날’ 또는 ‘세계청년대회’<sup>1)</sup>)는 가톨릭 교회가 공적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특별한 날을 일컫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처음 제정된 WYD는 1986년부터 매년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주일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기념해 오다가 2021년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계 젊은이의 날’을 제정하며, 개별 교구 차원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작은 행사나 프로그램<sup>2)</sup>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매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담화문’<sup>3)</sup>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년마다 국제적 차원의 대회인 WYD(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하여 교황이 선정한 개최지<sup>4)</sup>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교황과 전 세계의 주교, 사제, 수도자, 젊은이들, 가톨릭 교회의 다양한 국제 조직과 단체들이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WYD에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중심

으로 교황과 주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들이 지닌 신앙을 확인하고 나눕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핵심 주제들에 관해 개방적인 토론의 기회를 갖고, 이를 숙고하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축제의 장에 초대됩니다.

## ■ WYD의 역사

### 1) WYD 제정

WYD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젊은이 사목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즉위 당시부터 “청소년은 세상의 미래이자 교회의 희망이며, 자신의 희망”이라고 선포했던 교황은 1983년 3월 13일, 로마에 성 로렌조 청소년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5일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1,950주년을 기념하는 ‘구원의 성년’을 선포하고, 센터의 젊은이들로부터 ‘구원의 성년’을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교황은 구원의 성년 폐막행사(1984년 4월 15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로마)에서 청소년대회(시범대회)를 개최하였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의 열정과 에너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젊음을 일깨우고 더 많은 젊은이를 교회로 초대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희년을 마무리하며 교황은 로마 성 로렌조 청

소년 센터의 젊은이들로 대표되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증거이며 구원의 표징으로서 성년 십자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구원의 십자가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독일,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몰타, 미국, 네덜란드, 한국, 폴란드, 스위스와 호주 등으로 전달되었고, WYD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세계의 복음화 사명 수행에 젊은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교황은 1985년, UN이 제정한 ‘국제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를 기념하며 사도적 서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Dilecti Amici)」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World Youth Day)’로 지낼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1986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3월 23일 로마에서 제1차 WYD(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었고, 로마를 비롯한 각 지역 교회에서 교구별로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WYD의 시작입니다.

## 2) 역대 WYD 개최 지역 및 주제



▲ 역대 WYD 개최지

<p>● 1986년 로마 - 이탈리아 어려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언제나도 담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미터 3.15</p>	<p>● 2005년 콜른 - 독일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미터 2.2</p>
<p>● 198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 아르헨티나 우리는 하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미터 4.16</p>	<p>● 2008년 시드니 - 호주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p>
<p>● 1989년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 스페인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6</p>	<p>● 2011년 마드리드 - 스페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든든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루카 2.7</p>
<p>● 1991년 칭스트호바 - 폴란드 어려분은 여러분을 하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디. 루카 8.15</p>	<p>● 2013년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미터 28.19</p>
<p>● 1993년 덴버 - 미국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0.10</p>	<p>● 2016년 크라쿠프 - 폴란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미터 5.7</p>
<p>● 1995년 마닐라 - 필리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p>	<p>● 2019년 파나마시티 - 파나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p>
<p>● 1997년 파리 - 프랑스 선생님, 목과 계시는 데가 어찌지 알고 싶습니다. .... 와서 보라. 요한 1.38-39</p>	<p>● 2023년 리스본 - 포르투갈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곁을 떠났다. 루카 1.39</p>
<p>● 2000년 로마 - 이탈리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요한 1.14</p>	<p>● 2027년 서울 - 대한민국 왕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p>
<p>● 2002년 토론토 - 캐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미터 5.13-14</p>	

▲ 역대 WYD 개최지와 주제 연표

## ■ WYD의 진행 순서



### 1) WYD 상징 순례

WYD 폐막 미사 때 교황이 차기 개최지를 발표하면 이후 ‘세계 젊은이의 날’에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차기 개최 교구에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개최 교구는 WYD를 준비하는 3년 중 첫 번째 해의 ‘세계 젊은이의 날’에 WYD 상징물인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인수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WYD가 시작되기 전 세계의 몇몇 국가와 개최 국가의 전 교구를 순례합니다.

### 2) 교구대회(Days in Dioceses; DID)

WYD 본대회 이전에는 해당 국가나 주교회의 내의 여러 지역 교구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WYD의 사전대회 성격인 교구대회(Days in Dioceses, 이하 DID)를 개최합니다. 교구대회는 WYD 본대회 개최 교구를 제외한 지역 교구에서 준비한 고유 프로그램과 젊은이 사도직 단체에서 준비한 행사들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하여 지역 교회의 신앙과 문화, 역사, 자연유산과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일반 가정과

각 일선 본당에서 홈스테이가 실시됩니다.

### 3) 본대회

5박 6일간 진행되는 본대회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개최 교구의 교구장이 집전하는 개막 미사와 교황이 참석하는 행사인 교황 환영 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폐막 미사가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 나라에서 선임된 주교들이 직접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는 ‘교리교육 성삼일’입니다. 셋째는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소센터’와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YF(Youth Festival, 젊은이 축제)입니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고해성사(화해센터)와 성체조배(Adoration center)가 진행됩니다.

### 4) 후속모임

젊은이들은 성지순례, 미사, 교리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WYD의 경험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기회를 가집니다.

## ■ WYD의 의의

교회가 세계 젊은이의 날을 특별 주일로 선포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중요하게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WYD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일회성의 거대한 행사이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들만 참석

가능한 행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가난한 젊은이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종교에 회의적인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순례는 고루하게 여겨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WYD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WYD를 개최했던 모든 도시가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WYD를 개최한 도시와 지역 교회들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십시오!”라는 교황의 메시지에 열정적인 환호로 응답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WYD 개최를 통해 미국 교회는 미국 가톨릭 청소년·청년 사목의 발전을 견인하는 전문가 그룹을 발굴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교회는 ‘행사의 준비-실행-후속’의 전체 여정을 통해 사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WYD를 준비한 결과, 필리핀 청소년·청년 사목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노령화되었던 유럽의 지역 교회들은 WYD를 통해 교회 쇠퇴의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지 모르던 각 본당의 성인 세대를 훈련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오래된 전통과 유산을 가진 교회가 젊은이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그들과의 만남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WYD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축제, 그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2021년 4월 22일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현 평신도가정생명부)는 ‘개별 교회의 세계 젊은이의 날’ 여행을 위한 사목 지침서’를 통해 개별 교회는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 여행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교회의 관심과 사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WYD는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영성과 신앙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아픔과 희망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WYD를 통해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신앙과 문화를 통해 교류하며 모든 이가 환대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WYD 안에서 다양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기후, 전쟁, 빈곤, 평화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WYD의 참가 대상에는 종교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sup>5)</sup> 따라서 이 축제는 가톨릭 교회만의 행사가 아닌 모든 젊은이의 축제이자, 나이를 뛰어넘어 젊음을 간직한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WYD에 직접 참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축제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젊은이들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갈 젊은이들의 열정을 뜨겁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 한국 교회와 시노달리타스

###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한국 교회

2023년 8월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 리스본 WYD 파견 미사에서 2027년 WYD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호명했습니다. 이 발표로 한국 교회는 WYD의 주최자인 교황과 함께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WYD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젊은이들과 함께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로 이끄는 교황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2027 서울 WYD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시노드 정신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몇몇 대의원 주교들만 참석하는 방식과 달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도록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에 초대하며,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사명)”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곧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가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입니다.

다. ‘시노드(Synod)’<sup>6)</sup>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뜻하는 단어로, 초기 교회부터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며 식별을 통해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노드 정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할 무렵 제정된 세계주교시노드를 통해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sup>7)</sup>

특별히 이번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sup>8)</sup>”으로써,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sup>9)</sup>”을 뜻합니다. 교회 삶 전체와 관련하여 함께 식별하는 행위뿐 아니라 실천 분야까지 아우르는 교회의 생활 방식(Modus Vivendi)이자 활동 방식(Modus Operandi)입니다. 이런 뜻에서 교황이 제시하는 시노드 교회는 온 하느님 백성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귀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즉 함께 친교를 나누고, 주어진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 서울 WYD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초대에 응답하며, 시노달리타스 체험을 심화하고 성령 안에서의 대화 모임을 체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젊은이 양성 과정을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sup>10)</sup> 교황 권

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와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읽고 묵상한 것을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식으로 나눈 것입니다.<sup>11)</sup> 이 양성 과정에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다양하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젊은 마음을 지닌 다양한 연령(20대부터 60대)의 하느님 백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며 기도하고 함께 식별하며 공동 사명을 향한 여정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하느님 안에서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 초기 한국 교회 정신을 계승하는 시노달리타스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로 구성된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이 여정에 함께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품위를 누립니다.<sup>12)</sup>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 모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품위를 지닌 동반자입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가 교회의 주체이며, 곧 교회입니다. 특별히 선교사의 도움 없이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싹을 틔운 한국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새

로운 세상을 희망하며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발견하였고, 세례를 통해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성직자가 없는 시기에도 평신도들은 북경의 주교와 보편 교회에 끊임없이 사제 파견을 요청하고, 목숨을 바쳐 순교로써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철저한 신분제가 존재하던 시기에 신분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지키고자 기꺼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삼천년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노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령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협력을 통해 친교를 맺으며 공동체적 사명을 함께 수행해 가며 시노드 정신을 살아야 합니다.

## ■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2027 서울 WYD

우리가 시노드 정신을 살며 2027 서울 WYD를 준비하기 위해 서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노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시노드 교회 체험)이며, “하나님께서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뜻에 일치할 때까지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것”(시노드 교회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청과 대화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합니다.<sup>13)</sup>

특별히 우리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동안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를 통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음을 성찰한 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온전히 다가가지 못했으며, 젊은이들이 교회가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고백했습니다.<sup>14)</sup> 따라서 우리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편견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함께 걷는 여정’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는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저마다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있고, 서로 경청하고 배우며, 하느님께서 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은사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 이해

앞선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교회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여정을 통해 최근의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음을 성찰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의견 중 하나로서,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처음 천주교 신앙이 한반도에 전해지고 난 뒤로부터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의 형성 과정과 오늘날 한국 교회 젊은이 사목이 처한 현실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젊은이 사목에 대한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오늘날 한국 교회 젊은이 사목의 형성 과정<sup>15)</sup>

한국 교회는 1784년 28세의 젊은 청년 이승훈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천주교 신앙을 한반도에 전하고, 명례방(지금의 명동)에서 신앙 집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240여 년의 역사 동안 젊은이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각 본당의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교리 교사로 참여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셀(Cell) 모임’, ‘레지오 마리에’와 같은 가톨릭 학생 운동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84년에 개최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 회의에서 처음으로 ‘청소년(학생) 사목’을 따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젊은이 사목은 젊은이를 피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평신도의 사명을 부여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사회 복음화의 주체적인 사도로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 내에는 메리놀 외방 전교회의 ‘선택(choice) 운동’과 같은 주말 피정이나 성령 기도회, ‘가톨릭청년성서모임’과 같은 영성 신앙 교육 프로그램, 서울 가톨릭대학교의 낙산 중창단, 수원 가톨릭 대학교의 갯등 중창단과 같은 찬양 사도직을 통해 젊은이 사목의 저변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젊은이 사목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합니다. 이에 각 본당에서는 교리교육과 신심 단체의 틀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동아리를 중심으로 사목 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젊은이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화, AI 출현으로 인한 4차 산업 혁명의 바람,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등 사회·문화적 문제에 직면한 한국 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교구와 수도회를 중심으로 좀 더 유연하게 사목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각 교구와 개별 수도회에서는 젊은이 사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사목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노력을 통해 과거 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식의 사목 방식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세대간 연대<sup>16)</sup>, 보편 교회와의 다양한 신앙적, 문화적 체험 교류, 가정 중심의 사목 역량 강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사목 저변의 확대, 젊은이 중심 거점 성당의 형성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젊은이 사목의 당면 주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 젊은이 사목의 과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젊은이 사목에 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 신자 수의 감소, 성사 참여율 저하, 냉담률 증가, 신앙에 대한 확신과 교회에 대한 자긍심 및 신앙 만족도의 하락 등은 한국 천주교회의 젊은이 사목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보여 줍니다.<sup>17)</sup> 그 주된 원인은 실천의 부족과 탁상공론에 머무는 영적 세속성의 태도에 있습니다.<sup>18)</sup> 이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심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신앙과 세속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구원의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잘 심어 주느냐에 대한 가치의 문제.

**둘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제, 수도자, 봉사자들의 열정이 식고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무뎠지는 사람의 문제.

**셋째,**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전통적 주일학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지 못한 채, 주입식 방식의 재미없는 교리 교육과 미흡한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한계에 부딪힌 사목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문제.

**넷째,** 열악한 사목적 기반, 교회 기관들의 현대 부재, 봉사자들의 감소, 사회적 불확실성, 세속화와 상대주의적 주관주의, 비대면 사회와 같은 사목 환경의 문제 등에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이 진행되지 않고 정보 교환과 공감의 자리로만 그쳐 버린 문제.<sup>19)</sup>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문제 제기는 많았지만 그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마주하려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탁상공론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사목을 위한 단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짐으로써 그

여파는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신앙 활동이 회복되리라는 낙관적인 시선에 반해, 팬데믹 기간 이탈했던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수가 신앙의 습관을 잃어버렸고,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일학교 학생 수는 줄어들어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났고, 본당의 청년 단체들은 해체되거나 많은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이 사목의 현실 과제들이 사목자, 봉사자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대처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 ■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 원칙과 방향

지금까지 한국 교회 젊은이 사목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각 교구, 수도회 그리고 공동체마다 특성이 있고 처한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는 한국 교회 차원의 젊은이 사목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심포지엄, 공청회를 거쳐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질적 양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sup>20)</sup>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편찬하였고,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sup>21)</sup> 특별한 점은 지침서에서 밝히

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 원칙이 앞선 장에서 언급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시하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가며 그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귀 기울이는 시노드 교회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젊은이 사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통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젊은이 사목은 “젊은이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여 그들이 청소년 사목 활동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희망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양성”<sup>22)</sup>하는 동반 여정임을 제시합니다.<sup>23)</sup> “이 여정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받은 참된 자아와 소명, 비전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전문적 직업과 삶을 가꾸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체감할 수 있음에 희망으로 함께하는 친교, 참여, 사명(선교) 증진의 ‘동반 여정(시노달리타스)’에 해당”합니다.<sup>24)</sup>

**두 번째로,** 젊은이 사목은 젊은이들의 주도성과 능동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여정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인격적 동반’이 중요함을 제시합니다.<sup>25)</sup> 이에 “상호 간의 존엄성과 동등성을 이루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sup>26)</sup>를 맺는 동반의 개념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사목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고 이를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목을 지향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러한 사목이 펼쳐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sup>27)</sup> 이 장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이는 일상과 동떨어져 있거나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아닌,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열린 친교의 장소를 가리킵니다.<sup>28)</sup> 또 다른 장소는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즉 “전통적인 학교 수업과 같이 강요된 지식이나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개방된 사랑의 체험과 자유롭고 평안하며 신뢰받는 인격적인 관계”<sup>29)</sup>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목 프로그램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은 시노드 정신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스스로가 사목의 주역이라는 주도성을 심어 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마르 16,12-13; 루카 24,13-35) 이야기에서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동반자 역할을 행하며, 온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활동에 대한 식별을 통해 각자 고유한 신앙 여정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시하는 젊은이 사목의 원칙과 방향은 교회의 희망이자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젊은 세대’라는 단절된 존재가 아닌 온 교회와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로 통합시키기 위해 WYD를 제정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뜻에도 부합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노드 정신을 바탕으로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태하고<sup>30)</sup>, 성령의 이끄심에 영혼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고 기뻐하였던<sup>31)</sup> 성모 마리아와 같이, 미래의 젊은이 사목과 그 과정 중에 있는 WYD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 4

### 2027 서울 WYD의 의미

2027 서울 WYD는 만남의 축제이자, 교회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는 선교의 장이며, 희망의 순례임과 동시에 젊은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 WYD의 개최지를 서울로 발표하면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하며,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아름다운 표징입니다.”라고 선정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sup>32)</sup> 이처럼 WYD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특징을 가진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2027 서울 WYD를 통해 우리는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화합과 희망, 용기와 열정의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 ■ 2027 서울 WYD는 만남의 축제입니다.

WYD는 만남의 축제입니다. 젊은이와 젊은이가 만나고, 젊은이와 교회 공동체가 만나며, 젊은이와 교황이 만나고, 젊은이와 하느님이 기쁨 안에서 만나는 장이 바로 WYD입니다. 젊은이와 모든 교회 구성원과의 만남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톨릭의 가치

에 부합하며, 함께 걷는 길인 시노드 정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젊은이와 젊은이의 만남은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sup>33)</sup> 젊은이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함께 사회적 친교를 이룬다면, “다름을 뒤로하고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sup>34)</sup> 세계주교시노드 제15차 최종문서는 젊은이를 “또래 젊은이와 함께 사회 유대와 평화의 유대를 쌓기 위한 다양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종교적 헌신을 포함하는 시민 의식에 앞장서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35)</sup> 그런 젊은이들이 WYD 여정에서 만난다면, 하느님 나라의 공동선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2027 서울 WYD와 그 준비 과정은 젊은이와 교회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젊은이 사목의 위기를 체감하였습니다.<sup>36)</sup> 2027 서울 WYD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일상 안에서 함께하는 여정입니다.<sup>37)</sup> 그렇기에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자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젊은이와 교황의 만남은 WYD를 지속하게 하는 특별한 힘입니다. 젊은이들은 WYD 안에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전 세계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대화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젊은이들은 자신 안에 “변화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지니며, 자신을 통하여 “세상의 미래가 시작”됨을 확인합니다.<sup>38)</sup> 또한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인 교황과의 만남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서 현존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WYD를 통한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젊은이들은 마침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sup>39)</sup>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며 예수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해 줍니다.”<sup>40)</sup> WYD의 여정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곧 이 여정이 젊은이와 하느님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 2027 서울 WYD는 선교의 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 WYD가 개최되는 첫 번째 국가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WYD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들을 향해 마음을 열기를 바라시는’<sup>41)</sup> 하느님의 뜻과 부합하는 환경입니다. WYD의 주체가 되는 젊은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존재<sup>42)</sup>이므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 서울에서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이 만난다면 더욱 자유로이 종교, 문화 간의 대화와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WYD 여정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선교의 장입니다. 한국 성인 인구의 2/3가 비종교인에 해당하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종교에 대해 실망하였기 때문이라 응답하고 있습니다.<sup>43)</sup> 이는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들이 비종교인들에게 종교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가치를 잘 보여 주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 서울 WYD의 여정을 통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젊은이들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비종교인들이 가진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K-pop을 필두로 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한국의 음악과 문화는 세계를 위로했으며, 한국을 통해 전파된 아이돌 팬덤 문화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국경과 인종을 떠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중심에 선 한국에서의 WYD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서로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WYD는 한국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설립되어 많은 순교 성인들의 숭고한 믿음을 통해 신앙을 지켜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은 민주화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분투해 온 바 있습니다. 2027 서울 WYD는 비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서, 선교사 없이 선포되어 지켜져 왔던 복음의 빛을 세상에 알리고, 성인들과 선조들의 열정을 지금 여기로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 2027 서울 **WYD**는 ‘희망의 순례’<sup>44)</sup>입니다.

2027 서울 WYD는 2025년 희년의 정신을 이어가는 WYD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희년은 2023 리스본 WYD와 2027 서울 WYD 사이에 거행되는 희년으로, 2027 서울 WYD는 준비 과정 중에 희년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에서 “하느님 은총에서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징표들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리라는 부름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을 밝히며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시대의 어려움을 읽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

서 주님의 뜻인 ‘희망’을 식별해 내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sup>45)</sup>는 메시지를 전하며, 희년과 WYD가 젊은이들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지속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세기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 냈지만, 동시에 여러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기 희년 선포 칙서에서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젊은이들은 낙담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않는 미래와 지나친 경쟁과 개인주의에서 오는 절망과 외로움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찰나의 쾌락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희망”인 오늘날 젊은이에게는 희망의 징표가 필요합니다.<sup>46)</sup>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젊은이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며, 그들이 연대를 통해 서로를 하느님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장으로 초대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년은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을 북돋우는 계기”입니다.<sup>47)</sup> 이는 WYD를 제정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뜻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게 하고 싶었습니다.”<sup>48)</sup> 2027 서울 WYD는 젊은이들에게 혼자  
가 아니라 그들 곁에 다른 젊은이들이, 어른 신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순  
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희년의 ‘희망의 불꽃’을 전달하고 보존  
하는 과정으로 기능합니다.

■ 2027 서울 **WYD**는 젊은 교회(Young Church)로 가는  
사목 여정입니다.

WYD의 열매는 가톨릭 교회를 젊은 교회(Young Church)로 쇄신  
하는 데에 있습니다.<sup>49)</sup> “교회야말로 젊음의 힘과 아름다움을 이  
루는 것, 곧 시작한 일을 기뻐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며,  
자신을 거듭 새롭게 하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다시 출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sup>50)</sup> 그러므로 2027 서울 WYD는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데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sup>51)</sup>

첫째, 2027 서울 WYD는 한국 교회에 성취감과 활력을 가져  
다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980년대에 세 차례의 큰  
행사<sup>52)</sup>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폭발적인 신자 수 증가로 이 행사  
가 전교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2014 아  
시아 청년대회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  
사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니다. 또한 우리는 1993 덴버

WYD를 통해 사목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해냈다.”라는 체험이 미국 가톨릭 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취감이라는 열매는 가톨릭 교회 안의 쇄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며, 교회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2027 서울 WYD는 교회를 젊게(새롭게) 만드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995 마닐라 WYD는 ‘행사의 준비-실행-이후’의 여정을 통해 사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신자들은 WYD를 통해 젊은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였고, 봉사자들이 사목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였듯이, WYD는 “평상시에 청소년 사목에 계속 동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sup>53)</sup> 우리 교회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027 서울 WYD를 치러냄으로써 젊은 교회를 지속해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27 서울 WYD를 통해 한국 교회는 세대 간의 상호 협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앞선 1997 파리 WYD를 기회로 프랑스 교회는 홈스테이와 교구의 날 등을 통한 어른 세대의 환대를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젊은이들의 공동화(空洞化)라는 공동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WYD의 여정을 통해 교회와 어른 세대가 젊은이들을 배척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과의 만남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2027 서울 WYD가 가진 의미

WYD를 통해 젊은이들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도, 성체성사, 공동체 모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과 성인들에 대한 증언을 경험하며, “복음 메시지의 설득력 있는 증인이 됩니다.”<sup>54)</sup>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모여 가톨릭 교회의 젊음을 되찾을 것입니다. 2027 서울 WYD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에 대한 신학적 · 시목적 성찰

### ■ 주제 성구와 WYD의 사명적 연결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담화의 마지막 문장이며, 유언과 같은 선언입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과 일치할 통해 참된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적 초대이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사명과 파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이며 실재적인 평화를 강조하며, 그 평화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이겼다”에 해당하는 동사  $\nu\epsilon\nu\iota\kappa\eta\kappa\alpha$ 는 완

료 시제로, 과거에 이루어진 승리가 현재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승리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는 살아 있는 승리입니다.<sup>55)</sup>

이 승리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극복한 차원을 넘어서, 죄와 죽음, 그리고 악의 권세를 넘어선 구원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깊은 위로이자 사명의 말씀입니다.

## ■ 사랑으로 완성된 승리: 세상을 이긴다는 것의 참된 의미

요한복음에서 “세상”(κόσμος)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죄와 거짓, 폭력과 죽음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것은, 그 악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힘의 우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시고, 죄인과 대화하시며, 원수들조차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사랑으로 악과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승리를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용기를 갖고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 ■ 초대 한국 교회의 증언: 복음을 통한 삶의 전환

이러한 복음적 용기와 평화는 한국 천주교회 초기 공동체에서도 선명히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는 성직자 없이 평신도들, 특히 젊은 지식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시작되었습니다. 정약용과 이벽 등 당대의 지식인 젊은이들은 진리를 향한 갈망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만나게 되었고, 신분제 사회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며, 실제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sup>56)</sup>

이들은 신분제를 넘어서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였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가족과 사회,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이상적 신념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

서 복음을 살아낸 실천적 삶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한 이러한 살아 있는 신앙의 유산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시대의 '세상'을 이겨내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대 공동체는 복음이 여전히 오늘의 현실 안에서 실현 가능한 희망임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 ■ 젊은이의 현실과 교회의 소명: 동반자의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지평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꿈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 하였습니다.<sup>57)</sup> 실제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다양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경쟁과 불확실성, 관계의 단절과 방향성을 상실한 혼란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내면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WYD는 이러한 현실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교회는 훈계자가 아니라,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과 언어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며, 복음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도록 곁에서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sup>58)</sup> 이렇게

WYD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평화와 희망을 마음에 새기는 여정입니다.

■ ‘용기’와 ‘승리’에서 시작되는 파견: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아내는 여정

그렇기에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승리에 근거한 담대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선언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능동적인 용기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장이 바로 WYD입니다. WYD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 성찬례, 공동체와의 나눔을 통해 젊은이들은 일시적 감정을 넘어서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각자의 삶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은총입니다.

따라서 WYD는 단순한 행사나 축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증언하도록 파견되는 출발점입니다. WYD는 주님의 평화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 용기 있게 복음을 살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며, 부활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공동체적 체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 ■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주제 성구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파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성구를 통해 젊은이들을 세상 속으로 파견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2027 서울 WYD는 복음에 따라 고난을 견디며 신앙을 증언해 온 한국 교회 초대 공동체의 믿음과 용기의 유산을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은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절망을 이기는 용기, 이기심을 넘어서는 사랑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길입니다. 2027 서울 WYD는 이 파견의 출발점으로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부활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 6

### 2027 서울 WYD의 사목 방향과 운영 원칙

2027 서울 WYD는 한국 교회가 젊은 교회(Young Church)로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WYD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의 사목이고, 그 준비 과정을 통해 젊은이 사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본당 젊은이 사목의 활성화입니다. 각 본당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젊은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목적 방향의 일환으로 2027 서울 WYD 지역 조직 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2027 서울 WYD 기초연구팀을 운영했습니다. 본 문서의 2장 ‘한국 교회와 시노달리타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연구팀에 참여한 다양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2027 서울 WYD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한국 교회 젊은이 사목과 WYD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요한 운영 원칙들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을 통해 함께 경청하고 논의하며 제안한 2027 서울 WYD를 위한 중요 사목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27 서울 WYD의 사목 방향



### 1)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앙 여정으로서의 WYD

WYD는 젊은이들이 저마다 그리스도와 만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초대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신앙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WYD 안에서 한마음으로 증언하고 나누는 진실한 신앙고백이 됩니다. 이를 위해 WYD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깊은 신앙 체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WYD에 함께하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전부임을 온 마음으로 외치는 신앙 여정의 동반자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 2) 하느님과 깊은 관계로 성장하는 WYD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각자의 고유한 역할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잘 식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선적으로 갖는 것입니다.<sup>59)</sup>

이러한 기회의 장인 WYD는 다양한 관계와 체험을 통해 나 자신을 하느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깊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는 참된 나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고, 거짓 없는 나 자신이 맺는 진실한 관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토양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굳건해진 관계는 WYD가 끝난 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다시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성장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sup>60)</sup>

### 3) 시노드 정신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WYD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그들이 형성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시노드 정신은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잘 반영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시노드 과정은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는 단지 개인적인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교회는 더 큰 일치와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며,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추도록 이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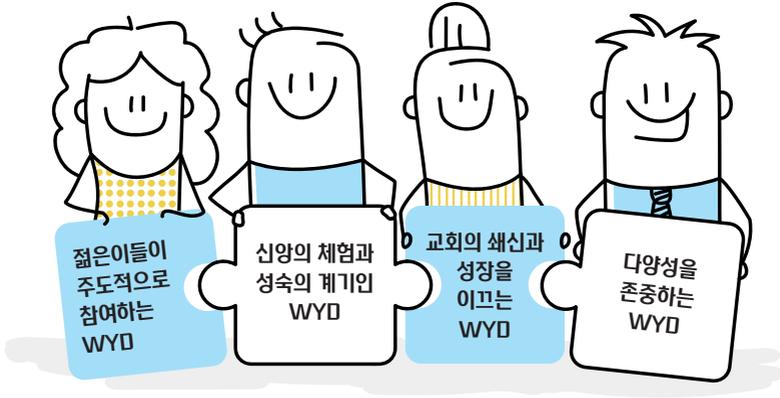
따라서 2027 서울 WYD는 이러한 시노드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 하느님께서 2027 서울 WYD에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식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은사를 발휘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 4) 함께 경청하며 소통하는 WYD

시노드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는 모두 소중하며, 이러한 상호 존중과 경청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경청해야 합니다. 시노드 나눔 방식인 '성령 안에서의 대화'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호 경청과 소통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젊은이들도 시노드 방식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WYD는 단지 젊은이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걸어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WYD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세대와 교회 구성원이 서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나누고, 젊은이 사목의 책임자와 동반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로 응답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상호 경청과 대화는 시노드적 교회를 살아가는 구체적 실천이 될 것입니다.

## ■ 2027 서울 WYD의 운영 원칙



### 1)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WYD

#### 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WYD를 통해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sup>61)</sup> 이를 위해 사목 책임자와 성인들은 젊은이들을 단순히 사목의 수혜자로 보거나 일꾼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젊은 세대와 세상을 복음화할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요청과 제안을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sup>62)</sup> 또한 WYD의 기획과 준비, 실행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효능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적극적인 경청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신뢰를 가지고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sup>63)</sup>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반하는 교회의 어른들<sup>64)</sup>을 통해, 젊은이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향해 자신의 젊음을 나누고 투신하며 진정한 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 ② 교회의 주체로서의 젊은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하는 것은 WYD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바로 나”라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깨달아야 하며, 단순히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서도 “청소년은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사회 개혁의 참여자로서 교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sup>65)</sup>라고 강조하며, 젊은이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 스스로가 교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순히 지침을 따르는 대상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서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주체로 투신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 ③ 젊은이들이 젊은이를 초대하는 선교의 장

공의회에서도 일찍이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sup>66)</sup> WYD를 직접 경험한 젊은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이 있으며 그들의 체험과 증언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WYD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이들을 WYD로 초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WYD를 경험하고 현재 교회 내 어른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을 환대하며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젊은이들은 자신이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들의 경험과 증언은 동시대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신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 ④ 젊은이 역량에 대한 신뢰와 인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WYD는 젊은이들 스스로 이끌고 참여하는 ‘살아 있는 젊은이 사목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WYD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미래이자 현재인 젊은이들이 WYD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WYD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들의 열망과 기대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족함과 실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기때 재촉하거나 책망하기보다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선물로서 그들과 동반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함께함은 WYD를 ‘살아 있는 젊은이 사목의 현장’으로 만들 것이며, 젊은이들이 스스로 ‘내가 교회’임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2) 신앙의 체험과 성숙의 계기인 WYD

### ① 케리그마의 선포를 통한 하느님 사랑 체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은 WYD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젊은이들은 WYD라는 순례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교황은 “지치지 않고 선포해야 할 단순한 진리”이자 “근본적인 확신”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sup>67)</sup>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 성모님께서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WYD가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단지 문화와 행사로써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톨릭적인 케

리그마와 신앙이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sup>68)</sup>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외아드님을 세상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젊은이들이 WYD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sup>69)</sup>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WYD 여정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널리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기도의 중요성 인식

WYD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기도는 단지 의무적인 행위가 아닌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각자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WYD 여정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위로받아 그 힘으로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봉사자들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봉사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WYD가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신앙 체험이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WYD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도가 우선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든 봉사자와 참여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 ③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파견됨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을 깨닫는 과정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WYD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동안 많은 젊은이들은 단순한 참여자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WYD를 통해 얻은 영적 체험과 은총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세상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써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YD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발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3) 교회의 쇄신과 성장을 이끄는 WYD

#### ①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회

2027 서울 WYD를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와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에서도 유의해야 할 요소로 언급하고 있는 ‘성직주의’<sup>70)</sup>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직자가 사목적 책임자로서 목자적 사랑으로 존중과 경청을 통해 양 떼를 돌보고 함께하며 나아가는 사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경청과 소통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신자들은 수동적으로만 참여하는 방식은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합니다.

특히 젊은이 사목의 영역에서 경청과 소통이 없는 성직주의적 접근은 젊은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복음화에 대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을 복음화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비중 있는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젊은이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수용되기를 고

집하거나 모든 문제를 다른 이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WYD라는 공동 사명을 위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기꺼이 나누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청의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쁘게 참여하며 함께 책임을 나눌 때, 우리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순례의 여정으로서의 WYD

WYD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국 젊은이 사목의 긴 여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의 순례 여정으로서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성숙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대회 준비와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WYD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젊은이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WYD 이후에도 후속 모임을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와의 연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을 단순한 대회의 참가자만이 아니라 WYD 이후에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아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며 교회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③ 사람과 봉사에 대한 소중한 가치 재인식

교회는 젊은이들이 봉사자로서 역할을 행할 때,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고 실제적 동반자로 함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봉사를 통해 교회에 기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봉사란 단순히 젊은이들에게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봉사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④ 본당, 지구, 교구, 보편 교회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본당, 지구, 교구 그리고 보편 교회와 유기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WYD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구 간의 연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한 공유가 중요합니다. WYD는 본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교구대회(DID)가 먼저 진행됩니다. 교구대회는 WYD 참가자들이 첫 환대를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본대회 못지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교구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를 맞이하며 교회가 지닌 젊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젊은이 사목

에도 중요한 쇄신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구와 교구 간의 효과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교구와 지구, 지구와 본당 간의 긴밀한 연결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협력적인 분위기 안에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맞이할 때,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교회의 젊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WYD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주의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태계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의 집인 지구는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삼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sup>71)</sup>라고 밝히며 우리의 책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WYD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 절제, 개발 효율의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을 요구합니다.”<sup>72)</sup> 그렇기에 가급적 최소한의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 재사용품을 활용하고, 지구를 보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

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계속 이어 나갈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WYD 안에서의 실천은 대사회적으로도 교회의 가르침을 보여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4) 다양성을 존중하는 WYD

##### 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WYD

우리는 WYD에서 “모든 다양한 젊은이를 위한 자리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열린 교회임을 보여 주는 포용적인 청년 사목”<sup>73)</sup>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젊은이는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아야 하며 그들이 형제자매로서 환영받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이때 한 사람도 빼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sup>74)</sup> 모든 젊은이들(중고등부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다양한 연령층, 지역 교구의 젊은이들, 냉담자, 교회 밖 젊은이들, 교회 제도 밖 젊은이 등)은 차별 없이 WYD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WYD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WYD는 전 세계에서 인종, 문화,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신념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환대해야 합니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함께 신앙을 나눈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② 세대와 나이를 아우르는 WYD

WYD(World Youth Day)는 세계청년대회라고 해석되지만, 그 대상이 단순히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WYD의 참가 대상에는 종교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로 정의되는 나이에 얽매이기보다 각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공통된 신앙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환대하는 WYD를 통해 기성 세대는 신앙의 전통을 나누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교류하며 세대 간의 상호 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③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WYD

WYD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장입니다. 따라서 종교를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도 참여자 모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은 다종교 국가에서 WYD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신념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며 소통함으로써,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④ 장애의 벽을 넘어서는 WYD

장애가 있는 이들도 WYD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이들이 참가자로서만이 아니라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행사에 사용되는 시설물은 장벽이 없는(Barrier Free)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WYD 참여자들의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와 수어를 포함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쉬운 언어로 설명된 콘텐츠가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든 WYD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지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지침은 장애 여부가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든 참가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우리는 장애가 있는 이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WYD를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이가 함께하는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5) 마무리하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초대할 이유와 그 안에 하

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올바로 찾으며 2027 서울 WYD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며, 우리의 생각대로그 아닌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 2027 서울 WYD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7 서울 WYD를 통해 젊은이들과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 7

## 맺음말

지금까지 WYD의 의의와 이를 준비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짧은 이 사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향한 교황의 메시지, 이에 응답하려는 한국 천주교회의 모습 그리고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참여한 기초연구팀에서 모아진 목소리를 종합해 보자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시노달리타스, 즉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한국 천주교회는 어느 한 세대, 계층, 집단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 이 여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으로 2027 서울 WYD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WYD를 통해 발산된 열정을 이어 나가려고 노력할 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sup>75)</sup>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027 서울 WYD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성모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성령의 힘을 통해 아

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분의 성장기와 공생활, 수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동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 맡기신 교회의 어머니로서 죽음 이후에도 승천하시어 삼위일체 하느님 곁에서 모든 신앙인의 기도를 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이들의 신앙 여정을 동반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자 동반자인 성모님은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sup>76)</sup>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굳게 믿으셨고, 많은 어려움에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sup>77)</sup> 고통을 겪으셨으나 언제나 당신이 걷는 신앙의 여정 중에 자리하고 계신 성령의 자취를 알아보며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성모님은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 되셨습니다.

2027 서울 WYD를 향한 여정에도 꽃길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보여 주신 모범과 같이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전구와 온 하느님 백성의 일치로 2027 서울 WYD의 준비부터 본대회,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의 사목적 여정을 걷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가 좀 더 역동적이고 희망 가득한 시노드 교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 미주

- 1 한국 교회에서는 'World Youth Day(WYD)'를 '세계청년대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WYD의 두 차원, 즉 ① 매년 시행되는 '세계 젊은이의 날'과 ② 3년마다 시행되는 'WYD 대회'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①번과 ②번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 표시 없이 WYD로 표기합니다.
- 2 교황은 매년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개별 교구가 지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구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다른 적당한 시기에 옮겨서 지내기도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대신하여 5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로 지내기로 결정하였고(198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그 후 5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는 표현 대신 '청소년 주일'로 지내도록 결정하였습니다(1993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 3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은 보통 당해 연도 초에, 특별히 국제적 차원의 WYD가 실시되는 때에는 전년도 말 이전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청소년 주일 교황 담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 4 국제적 WYD의 주최자는 교황입니다. 교황이 직접 개최지와 개최시기, 주제를 정합니다. 보통 차기 개최지는 WYD 폐막 미사 후 삼중기도 때 교황이 직접 발표하며, 유럽과 비유럽을 구분하여 교차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입니다.

- 5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6 ‘시노드(Synod)’는 교회의 거룩한 전승 안에서 사용되어 온, 오래되고 존중되어야 할 단어로서 전치사 *σύν*, ~와 함께)과 명사 호도스(*ὁδός*, 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Synod)와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이해하기」, 2021, 4쪽.)
- 7 참조: 같은 문헌, 12쪽.
- 8 교황청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6항.
- 9 같은 문헌, 7항.
- 10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역 조직위원회는 2024년 1월 25일 ‘WYD 사목 기초연구팀’을 조직해 6월 22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성직자·수도자와 다양한 세대의 평신도 등 40여 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한국 젊은이 사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2027 서울 WYD를 위해 주요 원칙을 제안하였습니다.
- 11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서울대교구 종합 문서, 「2024년 10월을 향하여: 깊은 데로 저어 나아가라」, 2024, 6항.
- 12 참조: 최현순, 『시노달리타스』, 바오로딸, 서울, 2021, 73-74쪽.
- 13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Synod)와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이해하기」, 19-20쪽.
- 1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교회 종합 의견서」, 2022.

## 미주

- 15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3-6항.
- 16 현재 한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의 분류는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청년부는 보통 20-40세에 해당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교구, 본당별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고 있어 정확한 분류가 어렵습니다. 사목현장에서는 특히 30대 중반 이상의 미혼 청년들에 대한 구분이 가장 어려운데, 이들 중 스스로가 청년부에 속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인 단체’에 소속되고자 해도 대부분의 성인 단체의 주된 활동 연령이 40대를 훌쩍 넘어 50-70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소속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17 참조: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각 교구의 조사 분석과 보고서. (앞의 책, 10항에서 재인용.)
- 18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복음의 기쁨」 96항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며, 영적 지도자나 현명한 목자로서 바깥에서 지시만 내립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환상에 빠져 우리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96항.)
- 19 참조: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7-10항.
- 20 참조: 같은 책, 12-14항.

- 21 “젊은이 사목은 한층 더 선교적이어야 하고, 통합적이어야 하고, 교육적이어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동반하는 사목이어야 하고, 젊은이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체험적이어야 하고, 대중적이어야 한다. 즉 불확실성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앞서 제시된 젊은이 사목을 약화 시키는 영적 세속성을 극복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젊은이들을 동반하는 사목을 지향하는 것이 젊은이 사목의 원칙과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조: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86-87항.)
- 22 정규현·오세일, 「청소년 사목과 시노달리타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사목적 적용에 관한 성찰」, 『신학과 철학』 46호, 2024, 55쪽.
- 2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9.3.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209항.
- 24 정규현·오세일, 앞의 책, 57쪽.
- 25 참조: 같은 책, 57쪽.
- 26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87항.
- 27 참조: 정규현·오세일, 앞의 책, 61쪽.
- 28 참조: 같은 책, 63쪽.
- 29 참조: 같은 책, 62쪽.
- 30 참조: 루카 1,35
- 31 참조: 루카 1,46-47

## 미주

- 32 “교황, WYD 폐막 미사 강론 “대지가 비를 필요로 하듯 교회와 세상도 젊은이를 필요로 합니다”, 『바티칸 뉴스』, 2023.8.6.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3-08/bring-god-s-radiant-smile-to-all-pope-tells-youth-at-wyd-mass.html>
- 33 “소소하고 때로는 수고로운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합의점을 찾고 가교를 놓으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만남의 문화가 가져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69항.)
- 34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69항.
- 35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에 관한 세계주교 시노드 제15차 정기총회 최종문서[이하 최종문서]」, 155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1호(202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93쪽.
- 36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 한국교회의 젊은이 사목 이해 참조.
- 37 참조: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8-40항.
- 38 같은 문헌, 174항.
- 39 요한 15,15
- 40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55항.
- 41 「2027 세계청년대회 서울이 선택된 이유?!」, 평화방송, 2024.05.
- 42 같은 프로그램.
- 43 참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갤럽리포트 2021.04.07. 6쪽.
- 44 2025 젊은이 희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이다.

- 45 프란치스코,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 권고 말씀」, 2024.05.
- 46 프란치스코, 「2025년 정기 회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024.06.17.
- 47 같은 글.
- 48 양윤성, 「우리는 아시아, 한국 청년대회에서 무엇을 배웠나?」, 'Salt+Light'. 브라질 세계 청년대회 홈페이지(<http://Wydcentral.org/>)' 재인용.
- 49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지향하는 젊은 교회(Young Church)란, 예수 그리스도의 젊음과 생기를 지닌 실제 젊은 세대와 그리스도의 젊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숙한 어른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 5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메시지」, 1965.12.10.
- 51 “젊음은 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오랜 제도가 그 긴 역사의 여러 국면들을 거치면서 쇠신되고 젊음을 되찾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4항.)
- 52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대회,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 53 프란치스코,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 권고 말씀」, 2024.05.
- 54 같은 문헌.
- 55 참조: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Zondervan, 1996, p. 573.

## 미주

- 56 『인사이드 한국천주교회』, 한국 교회사연구소, 2018, 103-110쪽.
- 57 프란치스코,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 권고 말씀」, 2024.05.
- 58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에 관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5차 정기총회 최종문서」, 142항.
- 59 참조: 2027 서울 WYD 기초연구팀 제안 종합.
- 60 참조: 같은 글.
- 61 「2027 세계청년대회 서울이 선택된 이유?!」, 평화방송, 2024.05.
- 62 참조: 2027 서울 WYD 기초연구팀 제안 종합.
- 63 참조: 같은 글.
- 64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 역할에 관해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2항에서는 “어른들은 청소년들과 사랑의 대화를 가져, 연령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자신의 보화를 나누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른들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기회가 닿는 대로 현명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청소년들을 사도직으로 이끌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심을 길러야 하며, 비록 새로운 것에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하더라도 귀중한 전통은 마땅히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65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7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9, 46항.
- 66 참조: 같은 문헌, 46항.
- 67 프란치스코,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 권고 말씀」, 2024.05.

- 68 참조: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13항.
- 69 참조: 같은 문헌, 213항.
- 70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주의는 사제들이 받은 직무를 거저 아낌없이 바쳐야 할 봉사가 아니라, 권력 행사로 해석합니다. 성직주의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경청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는 한 단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성직주의는 축성된 이들이 개개인과 그의 자유가 지닌 기록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존중하지 않게 만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98항.
- 71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시에서 한 연설, 1997.11.8. : 프란치스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 우리의 공동의 집에 자비를 보여주기(*Show Mercy to Our Common Home*)」, 2016.9.1. 에서 재인용.
- 72 프란치스코, 회칙「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5, 22항.
- 73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4항.
- 74 같은 문헌, 206항.
- 75 루카 6,38
- 76 루카 1,37
- 77 루카 2,35

영<sup>✠</sup>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sup>다</sup>  
요한 16,33